

나눔과 상생 문화 실천



대광산업개발(주)는 지난 5월 12일 청주 중앙공원에서 점심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충북 소재 대광산업개발(주)[대표이사 김용환]는 지난 5월 12일 청주 중앙공원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중앙공원 사랑의 점심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개최된 이번 행사는 김용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과 자녀, 김용환 대표이사의 부인인 김미수 씨, 청주 불자봉사단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천여 명의 지역 어르신들께 육개장으로 점심을 대접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했다.

김용환 대표이사와 부인 김미수씨는 “베풀 수 있어 감사하다. 앞으로도 주위의 어려운 독거 어르신들과 소외계층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해

나눔과 상생의 문화를 열어 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랑, 나눔의 행복’을 전파하기 위해 ‘사랑의 점심나누기’ 행사를 앞으로 매년 개최할 것을 다짐했다.

김용환 대표이사와 부인 김미수씨는 불교신자로서, 청주 불자봉사단 회원들과 함께 양로원이나 소외계층,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한편 김용환 대표이사는 1997년부터 성실시공과 견실시공으로 회사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제5대 집행부에서는 가스시설시공업협의회 간사를, 제6대 집행부에서는 충북도회 운영위원을 역임한 모범적인 기업인이다. 